



‘그남자의 골목-Y’

‘판타블로’ 기법으로 선보인 양림의 풍경



이민 작가

화순 출신 이민 작가 25년만에 작품으로 재회
내일부터 양림미술관에서
‘양림동 풍경’ 전

“광주를 생각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양림동의 소박한 풍경은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하게 합니다.”

화순 출신 이민 작가가 25년만의 광주 전시를 선보인다.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양림미술관에서 ‘양림동 풍경’을 주제로 26점의 혼합기법 평면회화를 건다.

청소년기 광주 소재동과 양림동, 방림동에 거주했던 작가는 양림동을 그려보고 싶은 마음에 지난 1월부터 광주에 틈틈이 찾아와 작업을 위한 리서치와 밑그림을 그리며 전시를 준비해 왔다.

작가는 “이번 전시 양림동 풍경은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스스로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오랜 시간 떠났었던 가족, 화우, 선배들과 작품을 통해 재회하고픈 마음에서 전시를 준비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의 명문 미술대학인 다마대 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했던 작가는 국내보다는 일본에서 인기작가로 주목받았다. 귀국한 후에는 중앙무대에서 작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현재 경기도 안양에 작업실을 두고 있다.

작가만의 독자적 기법인 ‘판타블로’는 서양화와 판화의 혼합방식 기법이다. 서양화를 전공했던 작가는

대학 3학년부턴 판화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만의 형식과 표현어법인 판타블로 기법을 창안해 일본에서 박히트를 기록했다.

작가의 69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작가의 친형을 기억한 작품 ‘H씨의 5월 기억’ 등 100호 대작에서부터 4호 소품까지 다양한 양림동의 풍경을 판타블로 기법으로 선보인다.

작품 ‘그 남자의 골목-Y’에서는 양림동 골목에 그려진 한희원 작가의 벽화도 그림 속에 등장한다.

양림미술관 지하 공간에서는 10분 짜리 영상으로 작가의 아카이브 기록

을 상영한다.

25년만의 광주 전시를 여는 작가의 감회는 어떨까. 작가는 봉선동에 살고 계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냈다.

“닭이 만 마리면 봉황이 한 마리라는 어머니 말씀을 새겨 늘 성실하게 작업해 왔어요. 어머니는 현재 경증 치매를 앓고 계신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 작품을 어머니께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남구에서 기회를 쥐고 마음이 크고 뜻깊게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개막식은 11일 오후 5시.

/이연수 기자



‘H씨의 5월 기억’

조각 작품으로 만나는 ‘시대의 흐름’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 19일까지 광산아트플러스 전

광산구는 오는 19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광산아트플러스’ 11번째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 ‘광산아트플러스’란 다양한 미술작품 전시를 통해 관내 시각예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 기획전시 시리즈의 통합 브랜드 명칭이다. 광산구와 지역 예술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양질의 전시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주제로 한 조각 작품들을 관객에게 선보인다. 갑오농민, 근로정신대 할머니, 오월 어머니 등 시대의 애환이 서려 있는 모습들을 나무와 점토를 사용한 조각 작품으로 표현해 낼 예정이다.

전시회 참여하는 지산품문화예술연구소(대표 최재덕)는 잊지 말아야 할 다양한 가치들을 예술을 통해 풀어내며 사회 전반에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오는 19일까지 ‘시대의 흐름’을 주제로 한 조각작품들을 선보인다.

있는 시각예술 단체다. 광주 북구 ‘평화의 소녀상’ 제작, 전남대학교 벽화 ‘광주민중항쟁도’ 복원 사업 등에 참여했다.

전시 관람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문의062-960-3686. /이연수 기자

전남수필문학회 ‘전남수필’ 제45호 발간

회원 24명 50작품 수록

고 조영남 작가 추모 특집

전남수필문학회(회장 김수자)는 최근 2018년 회원작품집 ‘전남수필’ 제 4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원로 수필가 김학래 씨의 ‘그때 그 시절의 결혼 풍속도’를 비롯, 정경길, 임인택, 김수기 씨 등 24명 회원의 수필작품 50여 편이 수록됐다.

특히, 작고 문인 조영남 수필가의 추모 특집에는 생전 고인과 가까웠던 수필가 주광현, 박주언 씨의 회고담과 함께 장병호 씨의 문학평론 ‘조영남의 수필세계’, 유고작 ‘나의 묘비명’ 등 6편의 수필이 실려있어 작가의 체취와 숨결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김수자 전남수필문학회장은 “앞으로 도내 각 지역 수필인들을 규합해 회원 수를 늘려가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남수필문학회는 전남 출신 및 전남 도내 거주 수필가들로 구성된 문학단체다. 1976년 창립 이후 42년째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회원작품집을 펴내고 있다. /이보람 기자

누워만 있어도 **노폐물이 펑펑!**

100% 자연열! 편백효소 찜질!

“면역력은 쭉~욱! 노폐물 쭉~악! 다이어트와 힐링을 한번에!”

편백나라 **효소공**

예약문의 **062) 372-5888**

광주 서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건너편 동양사우나 2층



각 방송국에서 절찬 소개된
편백효소찜질의 효과

체온도 올리면 자연면역치유력이 5배증가한다?
미생물의 자연열에 의한 1.체온상승에 의한 면역력 증강 효과
2.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배독효과 3. 혈액순환을 원활하게하는 기혈작용
4. 전신의 혈자리를 자극하는 뜸효과

편백나라 **효소공 5코스**

1. 편백효소욕(15분) 2. 기계마사지(15분)
3. 편백 적외선 반신 욕(20분) 4. 파라핀, 족욕 5. 허브찜질

편백나라 효소공! 대한민국 대표 힐링 명소
“웰니스 25”선정 (광주 단 1곳 선정) 기념 세일!

웰니스25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추천하는 대한민국 대표 힐링명소. 25곳 선정
주관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체인·가맹점문의

※ 광주지점 : 남구, 북구, 광산구, 동구 각 1개소
※ 전남북지점 : 여수, 광양, 담양, 화순, 나주, 목포, 영광, 전주 각 1개소
150평이상 사업면적

문의전화 **010-9282-8088**